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 I 문학의 본질과 구조

-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30문제)-----1쪽
- ② 서경별곡 (39문제)-----14쪽
- ③ 나상 (44문제)-----35쪽
- ④ 북어 대가리 (42문제)-----62쪽
- ⑤ 나와 남 (18문제)-----87쪽

### 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① 이춘풍전 (32문제)-----102쪽
- ②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30문제)-----126쪽
- ③ 세한도 (30문제)-----142쪽
- ④ 메밀꽃 필 무렵 (31문제)-----157쪽
- ⑤ 유충렬전 (32문제)-----177쪽
- ⑥ 울포의 기억 (24문제)-----200쪽
- ⑦ 이옥설 (30문제)-----212쪽

### III 한국 문학의 성격과 위상

- ① 속미인곡 (42문제)-----222쪽
- ② 미스터 방 (30문제)-----245쪽
- ③ 춘향가 (25문제)-----268쪽

◆빠른 전체 정답-----**287**쪽

◆해설-----**290**쪽

**교재 버전: 2021.02.01**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 내신 준비 가이드

####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로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 내신 기출 문학 신사고-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 Q.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 Q. 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망망의 숲 맨먼저 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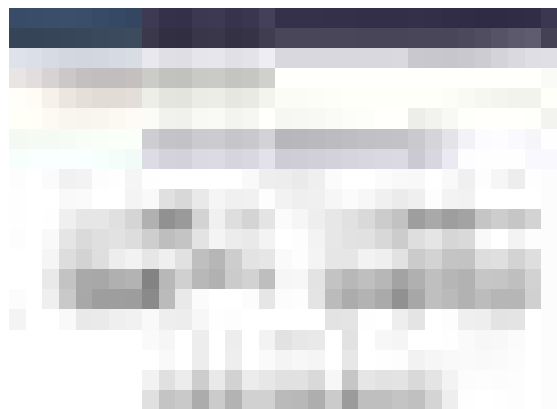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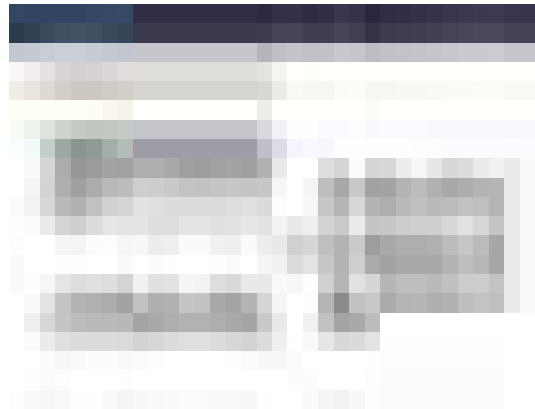
###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 고사 (        ) 과목에서 (        ) 점 득은 (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 고사 (        ) 과목에서 (        ) 점 득은 (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산수유나무의 농사” 필독 명리





### 【감상의 힘 다지기】

이 시는 봄이 되어 산수유나무에 노란 꽃이 핀 것을 보고, 자연의 정경과 인생의 단면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작품이다. 산수유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난다. 이것을 보고 시의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봄이 되어 저절로 꽃이 피어나는 것이지만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능동적으로 꽃을 터트린다고 상상한 것이다. 화자는 사람들이 마음의 그늘이 말려드는 것에 불평을 한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쩔 줄 모르고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산수유나무는 노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편안히 쉴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꽃만 능동적으로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늘도 스스로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라는 말은 그런 뜻을 담은 것이다. 산수유나무는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고, 꽃이 지면 산수유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땅에는 노란 꽃의 그늘을 드리워 아름다운 쉼터를 만들어 준다. 이것이 산수유나무의 농사이다. 화자는 이 농사의 가치를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관한 독창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과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비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서적·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산수유나무의 농사” 모티브 수업

### 1. 이 시를 읽고, 사상 전개 과정에 따라 각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구분	주요 내용
1~2행	노란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
3행	불평을 지닌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권고함.
4~7행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 감
8~9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을 농사지음.

### 2.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시를 감상해 보자.

#### (1) 이 시에서 ‘그늘’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그늘’은 사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에서는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 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2) 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시구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  
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의미**  
산수유나무가 꽃을 많이 피워 나무 그  
늘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는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의 공  
간을 제공하는 산수유나무의 정성과 노  
력을 의미한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  
은 땅에서 넓어진다

#### (3) (1)과 (2)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화자가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은 산수유나무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마음의 그늘이 욱말려든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다른 생명을 위한 안식처를 넓혀 가는 배려와 미덕을 지닌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것이다.

### 3. 이 시에 형상화되어 있는 산수유나무의 모습과, 이에 대비되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산수유나무의 모습**

- 그늘을 만들어 다른 이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함. / •다른 생명을 위해 정성스러운 노력으로 안식처를 만들어 제공함.

**인간 세계의 모습**

- 마음의 그늘이 욱말려드는 것에 불평을 함. / •이기적이고 인식하여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살아감.



4. 산수유나무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생과 나눔의 삶의 자세는 타인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과 대비된다. 따라서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이를 접한 현대인으로 하여금 딱딱하고 메마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보다 나은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산수유나무의 농사” 구형 필기

[Blank area for student writing]

I. ①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제편]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㉞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이 시상을 이끌어내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 ③ 대립적인 속성의 시어를 대비시킴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와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외형률의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참신한 시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보기1> 제시어 3개를 모두 활용하여 ㉞'그늘'의 의미를 상세하게 문장으로 표현하되, <보기2>에 제시된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

<보기1>  
 제시어: 생명, 산수유나무, 공간

<보기2>  
 '그늘'의 사전적 의미  
 1. 어두운 부분.  
 2.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3.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처지나 환경.  
 4.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행한 상태. 또는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두운 표정.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3. <보기>의 ㉠~㉣와 관련지어, 위 시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인식적 기능은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체험의 영역을 넓혀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준다는 것이고,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 독자들의 삶의 의미를 성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미적 기능은 문학이 우리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여 정서적으로나 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 ①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연물인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는다는 표현은 참신한 표현이니까 ㉠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 ② 산수유나무를 노란 꽃을 능동적으로 터트리는 존재로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③ 산수유나무의 관념적인 의미를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미의식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④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지녀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어두운 계열로 표현되는 그늘을 노랗다고 한 것은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그늘의 새로운 시적 의미를 만들어 냈으므로 ㉣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

**영파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위 시에서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구를 찾아 쓰시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들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한다. 예컨대 소설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하며, 왜 그런 행위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와 인간상을 체험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새로운 인물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보는 시야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능력이 그만큼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학은 체험의 영역을 넓혀 주고, 사고의 차원을 높여 주는 인식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독자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된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윤리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세상을 비판하는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앞길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척할 수도 있다. 이처럼 문학은 우리의 삶을 고양하고, ㉥공동체적 역동성을 증진하는 윤리적 기능을 갖고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산수유나무의 개화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 그늘에 봄날의 따뜻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 ③ ㉢: 산수유나무와 상대되는 성향을 가진 존재다.
- ④ ㉣: 산수유나무가 정성들여 농사지는 결과이다.
- ⑤ ㉤: 산수유나무 열매의 수확량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6. ㉥에 주목하여 (가)를 주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다는 시구를 읽고, 농사는 인간만이 짓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다.
- ②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봄이 되어 핀 꽃 덕분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구나!
- ③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는 사람은 타자와 상생하고 공존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라 할 수 있겠군!
- ④ 부족한 것 없이 살고 있어서 타인에게 무심했었는데, 이젠 나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산수유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야겠어.
- ⑤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땅 위에 피운 또 하나의 결실로 표현한 것은 자연의 특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통찰한 것이군!

**현대청원고등학교 (울산)**

7.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그늘'의 함축적 의미와 유사한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박남수, '새'
- ②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허로 훑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젓꼭지처럼 까맣다.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 ③ 열다섯 어여쁜 아가씨  
 부끄러워 말없이 헤어지고는  
 돌아와서 겹문을 닫고는  
 배꽃에 걸린 **달** 향해 눈물 흘리네  
 -임제, '무어별'
- ④ **산**이 저문다. /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해기가 없다.  
 애기 앓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김광균, '은수저'
- ⑤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山)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신동엽, '산에 언덕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이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끌어모으면 별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문태준, '산수유나무의 농사'

(나)

'산수유나무'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관한 독창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과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비된 우리 삶의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 시를 감상하면서 우리는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내면이 정서적·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문학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다)

문학에서 가치 있는 내용은 언어로 형상화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때 형상화란 감정, 관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요소를 구체적인 형태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문학이 언어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8. (나), (다)를 참고하여 ㉠~㉣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 것으로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산수유나무를 능동적으로 꽃을 피우는 존재로 상상하여 표현한 것으로 독자가 자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 통념을 벗어난 표현으로 '꽃'은 부정적 이미지로, '그늘'은 긍정적 이미지로 그려져 참신한 느낌을 준다.
㉢: '그늘'의 가치를 형상화한 것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이로 하여금 정서적·미적으로 고양된 삶을 살도록 이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금촌고등학교 (경기)**

9. (가)와 <보기>의 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다 쭈뼛쭈뼛 훑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 ① <보기>와 달리 (가)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② <보기>와 달리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보기>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보기>는 시적 대상인 자연물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나타냈다.  
 ⑤ (가)와 <보기>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0. ㉡에 쓰인 비유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비유를 통해 제시되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서술하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40.③

▶임에 대한 하소연, 그리움의 표현 등 심리를 진솔하게 표현함.

▶어머, 이걸 외워야 해!◀

고사: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 또는 그런 일을 표현한 어구. 고사라고 해서 사자성어만 있는 것이 아니다.

42.①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님.

### Ⅲ-1 미스터 방

1.⑤

▶내화에서 외화로 이동하는 액자식 구성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 과장법의 종류

- ㄱ. 확대 과장법- 태양 같은 내 마음
- ㄴ. 축소 과장법- 내 심장이 쥐꼬리 만해졌다.

#### 2.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 3.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 ㄱ. 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 ㄴ. 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2.③

▶㉔ : 가렴주구(苛斂誅求)-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들볶는 정치 또는 관리.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자신이 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함. ② 표리부동(表裏不同):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④ 후안무치(厚顏無恥):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다른 사람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

3.②

▶ㄴ. 전지적 작가 시점임 ㄷ.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님.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 소설의 시점 (★★★)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상상력 제한↑

-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 2.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 (★)

- ㄱ. 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 ㄴ. 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쓰야함)

- \*뭘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 3. 소설 구성의 분류 (★)

- 1) 중심 사건의 수와 형태에 따라
  - ㄱ. 단일 구성: 중심 사건 1개
  - ㄴ. 복합 구성: 중심 사건 2개 이상
  - ㄷ. 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속 이야기)
  - ㄹ.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서 전개.
- 2)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 ㄱ. 평면적 구성(순행):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진행됨
  - ㄴ. 입체적 구성(역순행):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4.①

▶백 주사는 자신을 하대하는 미스터 방의 태도에 분개하기도 하면서 미스터 방이 가진 권력을 부러워한다.

5.⑤

▶아형 : ㉔은 사대주의적 면모를 보일 뿐, 조국 기여와는 상관 없음. 태성 : ㉔과 ㉕은 미스터 방의 허세를 보여줌.

7.③

▶㉔ : 백 주사는 갑자기 출세한 방삼복에 대해 이중적 태도(패essim, 부러움)를 보임.

10.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여 주거나 심리를 직접 전달하며 인물의 됃됨이를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어머, 이걸 외워야 해!◀

#### 1.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2.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 11.④  
▶미스터 방, 백 주사라는 부정적 비판적 인물을 통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작가는 드러내려 하는 것임.

- 12.②  
▶㉑와 ㉒는 반어법이 사용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반어법 vs 역설법 (★★★)**

-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넘은 갔지만 넘을 보내지 않았다)

- 13.⑤  
▶미스터방의 달라진 처지에 대한 백주사 불편하면서도 부러워 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열거(나열) vs 반복 vs 대구 (★★★)**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 운율 형성! (눈, 눈, 눈이 내린다)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 운율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 14.③  
▶선인과 악인의 대립이 아닌 부정적 인물의 풍자가 주를 이룸.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미> 등의 사용

- 16.③

▶백주사는 미스터방을 통해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 17.④  
▶상황적 반어(가-기세등등하던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함, 나-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이 됨)를 통해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18.①  
▶(나)에는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 19.①  
▶ㄷ. 공간적 배경의 구체적 묘사는 없음. ㄹ. 서술자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직접 드러냄. ㄴ. 비현실적인 상황 설정은 없음.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희화 (★)**

: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비유.

**2. 문학 배경의 종류 (★)**

- ㄱ. 공간적: 언어, 행동, 심리 표출이 일어나는 모든 장소
- ㄴ. 시간적: 날짜, 요일, 계절, 년도 등
- ㄷ. 심리적: 우울함, 불안함, 기다림, 간절함 등 → 해당 심리가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냄.

- 20.②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① 대경실색(大驚失色):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것. ③ 기호지세(騎虎之勢):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 ④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미 기회를 잃은 후 한탄하는 모습.

- 21.⑤  
▶제오 : 미스터 방은 부를 획득한 뒤, 자신의 본질적인 습관까지도 철저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없던 양치질하는 습관이 생긴 것임.

- 22.④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비판한 것이 아니라, 풍자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함.

**▶넣어둬, 패턴 공략◀**

**자주 출제되는 선지 대립 양상**

자연적 ↔ 인위적 / 객관적 ↔ 주관적 / 능동적 ↔ 수동적  
내재적 ↔ 외재적 / 추상적 ↔ 구체적 / 자연 ↔ 속세  
간접적 ↔ 직접적 / 주체적 ↔ 순종적 / 현상 ↔ 본질  
외면 ↔ 내면 / 이면적 ↔ 표면적

**▶어머, 이건 외워야 해!◀**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23.⑤

▶백절폭포로 내려 쏟아져가 과장된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빈출 비유법 (★★★)**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졸졸졸)
-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24.④

▶기세등등하던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A]와 ④(내가 사과를 먹음→사과가 나를 먹음)에는 상황적 반어가 나타남.

**◆주제 저장소◆**

- ① <산도화>: 이상적 세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정경
- ② <흙>: 흙의 모성성
- ③ <하급반 교과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고통 받던 현실을 비판
- ④ <사과를 먹으며>: 생명 순환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
- ⑤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성숙해지는 삶의 의미

▶오타,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5.④

▶㉔ : 보기에 삼가거나 어려워함이 없이 아주 무례한 대가 있다.

▶오타, 1등급 조언◀

국어 내신은 때로는 아주 단순한 기억력 테스트이기도 하

다. 기억력 테스트 수준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 위와 같은 어휘 문제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교과서 날개 부분에 제시된 어휘는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에 임하자.

27.③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전말을 전달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 \*환상적: 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된.
- \*동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마음
- \*동화적: 환상적+비현실적

28.④

▶④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자기 과시적인 태도가 드러남.

**<두터비 썰리를 물고>**

- \*주제: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자
- \*해제: '두터비', '파리', '백송골'의 대응 관계를 통해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 사실시조이다. 여기서 '파리'는 피지배층인 서민을, '두터비'는 양반 혹은 지방 관리(탐관오리)를, '백송골'은 외세 혹은 상부의 중앙 관리를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①

▶일변으로는: 한편으로는

## Ⅲ-2 추향가

2.⑤

▶㉔은 이 도령'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임.

6.②⑤

▶② 신분 차이 때문에 그네를 탈 수 없는 건 아님. ⑤ ㉔만이 모두 추향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속을 믿게 하려는 이 도령의 의도가 드러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구어체 vs 문어체(문장체) (★)**

- 7. 구어체: 입으로 하는 말로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말투로 줄임말이나 개인적인 말투 등은 모두 구어체에 해당한다.(극 문학은 지문 빼고 모두 구어체라 볼 수 있음)
- 8. 문어체(문장체): 글로 하는 말로 구어체를 좀 더 객관화 혹은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춘 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공문서나 설명문은 반드시 문어체로 써야함)

- \*원 소리야? 난 이거랑 저거를 가져간다! →(구어체)
- \*무슨 소리야? 난 이것과 저것을 가져간다! →(문어체)

7.③

▶판소리는 다양한 계층이 향유한 문학임.